

수원시 1인가구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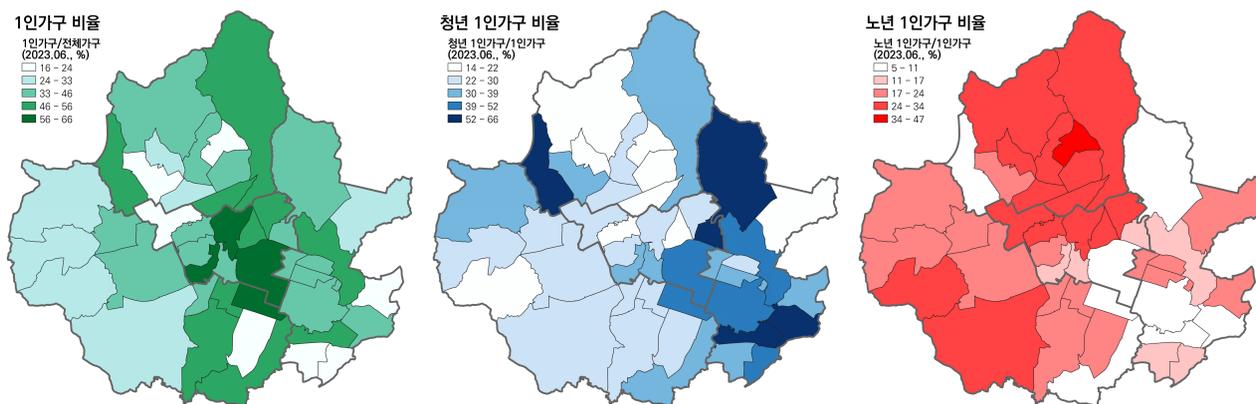
허경재 · 박관아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kjhuh@suwon.re.kr
도시공간연구실 위촉연구원, pka@suwon.re.kr

요약

- 수원시 1인가구 비율은 경기도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만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더딘 수준이고, 특히 청년 1인가구 증가보다 노년 1인가구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1인가구는 가구 특성상 비(非)아파트(주택유형), 중소형 주택(주택규모)을 선호하며 해당 주거 유형이 많은 지역에 1인가구 또한 밀집함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주거지 인근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이 타 연령대 대비 직장·대학 인근 및 역세권에 집중됨
- 수원시 행정동 단위 분석 결과, 청년 남성 1인가구는 대학·직장 인근을,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고, 노년 1인가구는 전통적 주거지에 밀집되어 있음
- 1인가구 대응 정책은 자칫 1인가구를 증가시키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 실패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목표와 함께 섬세한 기획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그림 1] 수원시 1인가구 현황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0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23년 7월 발표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2년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의 1인가구 비율(34.4%)은 경기도(3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팔달구는 42.0%로 전체 가구의 2/5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됨
- 성별·연령대별 분포 또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원시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이 요구됨
 - (성별) 서울특별시의 1인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3%인 반면에 영통구의 1인가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4.7%로, 지역에 따라 1인가구의 성별 밀집 정도가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¹⁾) 영통구의 1인가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9%인 반면에 권선구에서는 중장년층이 과반을 넘게 차지함(50.6%)

[표 1] 1인가구 현황(2022년)

(단위: %)

행정구역	1인가구/ 일반가구	성별 1인가구/1인가구		연령대별 1인가구/1인가구		
		남	여	청년	중장년	노년
전국	34.5	50.0	50.0	29.5	44.2	26.3
서울특별시	38.2	46.7	53.3	41.1	39.1	19.8
인천광역시	31.0	52.0	48.0	26.2	48.9	24.9
경기도	30.2	54.0	46.0	28.9	48.8	22.3
수원시	34.4	54.4	45.6	39.0	43.6	17.4
장안구	31.9	54.2	45.8	34.0	42.4	23.7
권선구	32.2	54.7	45.3	31.0	50.6	18.3
팔달구	42.0	53.9	46.1	38.3	43.1	18.7
영통구	33.9	54.7	45.3	50.9	37.8	11.3

주: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적색, 가장 낮은 지역은 청색 표시.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 본 연구는 사실과 원인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1인가구의 분포 및 변화 양상을 인수분해하여 현황 이해를 돕고, 주거·교통·교육 등 1인가구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1인가구 분포의 원인을 가능해보고자 함
 - 특히 분석의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수원시 44개 행정동 단위로 확장하여 수원시 관내 1인가구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함

1) 연령대별 구분은 청년(35세 미만), 중장년(35세 이상, 65세 미만), 노년(6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02 수도권 1인가구 특성

수도권 1인가구 현황

- 수원시 1인가구는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근래의 변화 속도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대비 2022년 1인가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원시(48.1%)는 경기도(59.2%)보다 훨씬 더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 관내에서도 증가 속도에 큰 차이를 보임(장안구 40.0%, 영통구 57.8%)
 - (성별) 수원시 관내에서 가장 큰 1인가구 증가율을 보인 영통구에서는 남성(45.3%)과 여성(76.0%)의 증가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팔달구에서는 남성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증가율(71.6%)에 비해 수원시(52.1%)는 낮게 나타났지만 노년층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경기도 86.8%, 수원시 83.77%), 수원시 관내에서는 팔달구에서 청년이 77.6%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영통구에서는 노년의 증가율이 116.1%로 7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함

[표 2] 1인가구 증가율(2015년 대비 2022년)

(단위: %)

행정구역	1인가구	성별		연령대별		
		남	여	청년	중장년	노년
전국	44.2	44.7	43.7	49.8	32.5	61.3
서울특별시	40.2	34.3	45.8	49.6	22.5	66.1
인천광역시	54.5	51.7	57.6	68.3	36.9	85.0
경기도	59.2	58.5	60.0	71.6	43.4	86.8
수원시	48.1	44.4	52.8	52.1	34.6	83.7
장안구	40.0	37.8	42.7	49.1	21.7	71.4
권선구	49.8	49.7	50.0	40.5	41.3	107.3
팔달구	42.1	42.9	41.2	77.6	17.0	55.2
영통구	57.8	45.3	76.0	48.8	57.9	116.1

주1: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주2: 증가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적색, 가장 낮은 지역은 청색 표시.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 증가율 혹은 증감이라는 수치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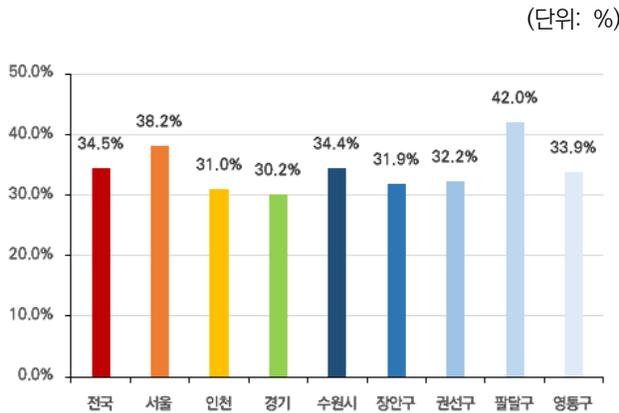
- 지역별 가구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과거 대비 현재의 변화량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비율로 계산하여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와 분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를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 신중한 접근을 요함

- 예컨대 A지역의 1인가구가 과거 10가구, 현재 20가구라면 과거 대비 10가구 증가에 증가율은 100%가 되고,

B지역의 1인가구가 과거 100가구, 현재 150가구라면 과거 대비 50가구 증가에 증가율은 50%가 됨
 - 결국, A지역(10가구 증가)보다 B지역(50가구 증가)의 1인가구가 40가구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A지역(100% 증가)이 B지역(50% 증가)보다 50% 더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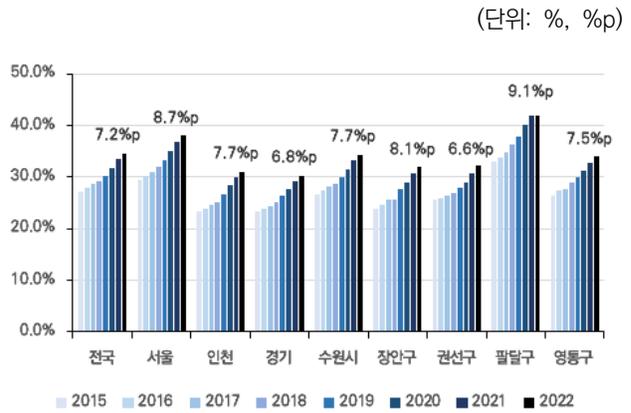
- 백분비를 뜻하는 퍼센트(%)와, 이러한 퍼센트 간의 차이를 표현한 퍼센트포인트(%p)의 혼동도 주의하기 바람
- [표 2]에서 팔달구의 1인가구 증가율은 42.1%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지만, [그림 3]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팔달구의 1인가구 비율은 9.1%p 증가하며 전국(7.2%p)보다 높음

[그림 2] 1인가구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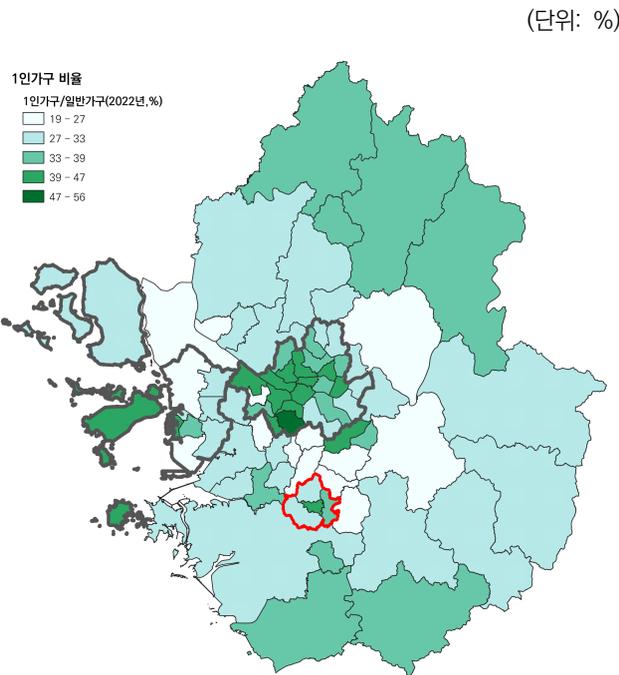
주: 1인가구 수 / 일반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 1인가구 비율 증감(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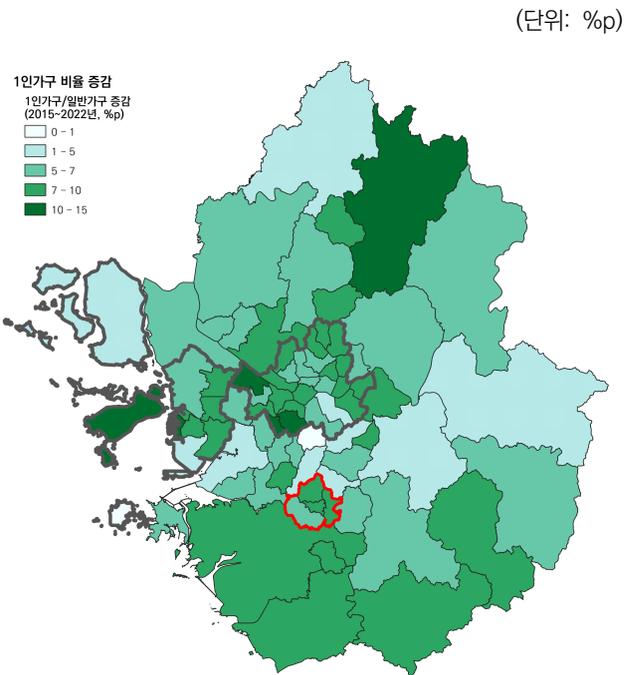
주: 수치(%p) = 2022년 1인가구 비율 - 2015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4] 수도권 1인가구 비율(2022년)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5] 수도권 1인가구 비율 증감(2015~2022년)



주: 2022년 1인가구 비율 - 2015년 1인가구 비율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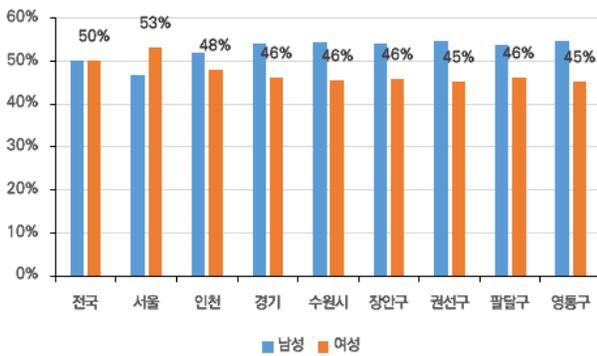
수도권 성별 1인가구

□ 성별 1인가구 분포에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변화 속도는 성별·지역별 다양한 양상을 보임

- 지역별 성별 1인가구는 대체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여성 비율이 53.3%로 남성보다 더 많은 1인가구를 구성하고 있음

[그림 6] 성별 1인가구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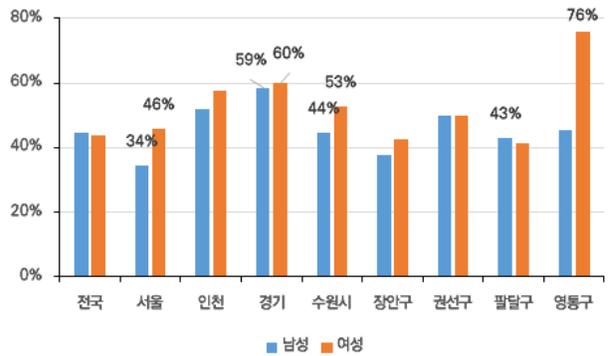
(단위: %)



주: 성별 1인가구 수 / 1인가구 수, 여성 1인가구 비율 표시.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7] 성별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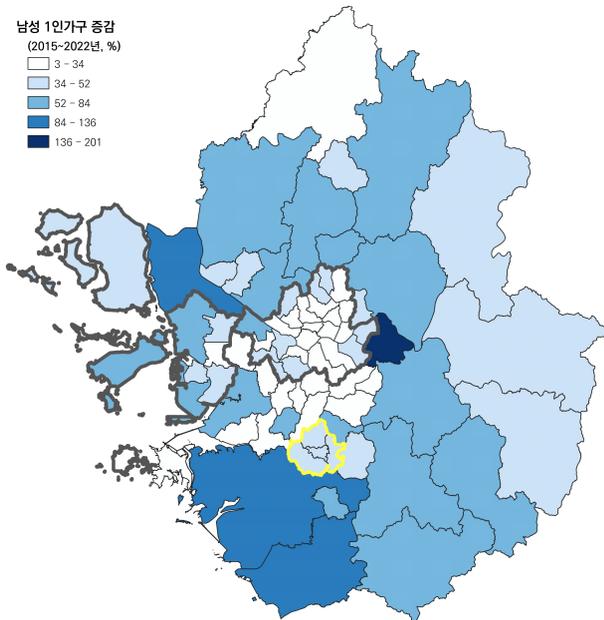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8] 수도권 남성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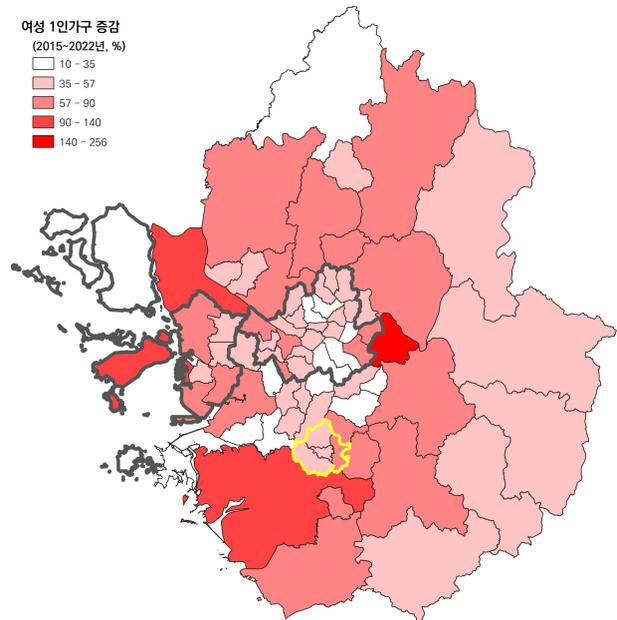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9] 수도권 여성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 남성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전국 단위에서는 여성보다 빠르지만,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더딘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44%)는 서울특별시(34%)보다는 높지만 경기도(59%)보다는 낮았으며, 팔달구는 이례적으로 남성 증가율(43%)이 여성 증가율(41%)보다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시군구 단위에서 남성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하남시(201%), 화성시(136%), 평택시(119%), 김포시(106%) 순으로 높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3%), 서울특별시 종로구(17%), 연천군(19%), 성남시 중원구(20%) 순으로 낮았음
- 여성 1인가구의 증가속도는 지역별 편차가 남성보다 컸으며,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수원시(53%)는 서울특별시(46%)보다는 높지만 경기도(60%)보다는 낮았으며, 영통구에서는 76%가 증가했음
 - 수도권 시군구의 여성 1인가구 증가 속도는 하남시(256%), 화성시(140%), 인천광역시 중구(136%), 김포시(123%) 순으로 높았고, 과천시(10%), 서울특별시 강남구(18%), 인천광역시 동구(20%) 순으로 낮았음

□ 성별·연령대별 등 대상의 분류에 따라 그림(지도)의 범례가 상이하므로, 직관적인 비교는 지양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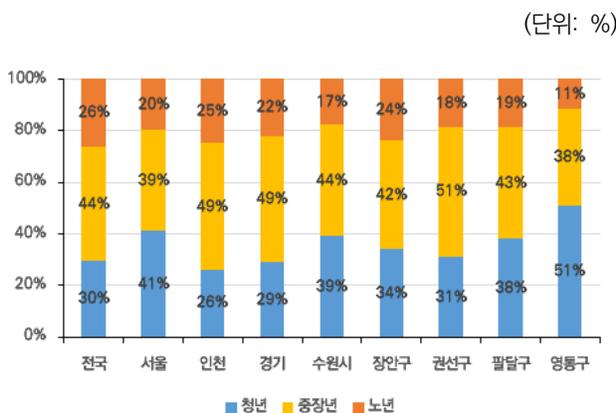
- 대상에 따라 비율의 크기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범례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범례를 구성함
- 즉, 모든 그림에서 동일하게 5단계로 구분되어 있지만, 범례 기준이 다르므로 흩어진 정도 또한 대상별로 다름

수도권 연령대별 1인가구

□ 수원시의 1인가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관내 행정구별로 상이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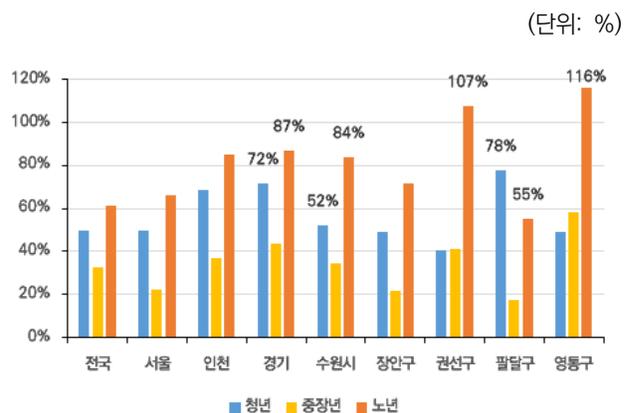
- 광역자치체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청년 비중(41%)이 가장 높고 노년 비중(20%)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서울로의 이주 사유 중 직업·교육 사유에서만 순전입이 이루어지며, 연령대로는 20대가 유일한 순전입 연령대라는 점(김상일·박정호, 2022)을 감안할 때 1인가구 비율에서도 청년층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됨
- 수원시도 청년 비율이 39%로 경기도(29%)보다 높은 반면에 노년 비율은 17%로 경기도(22%)보다 낮게 나타남
- 관내 행정구별로는 영통구의 청년 비율이 높고, 권선구는 중장년 비율이 높으며, 장안구에서는 노년 비율이 높음

[그림 10] 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2022년)



주: 연령대별 1인가구 수 /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1] 연령대별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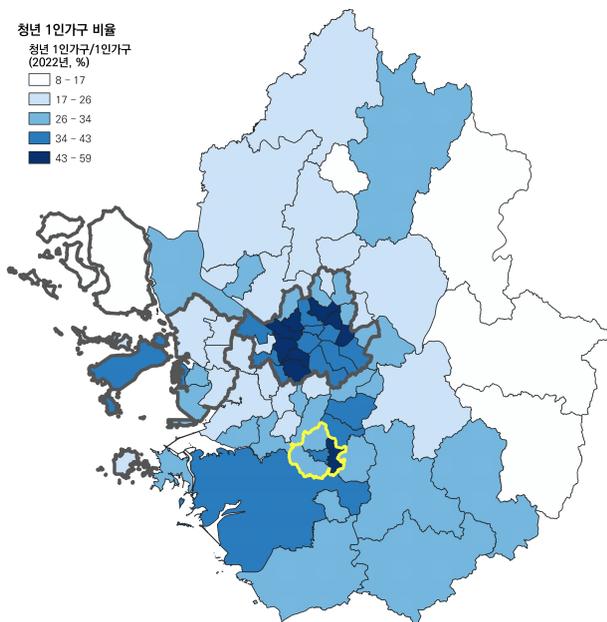
- **변화 속도 측면에서는 대체로 노년층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지역별로는 특정 연령대가 편중된 지역이 존재함**

 - 수원시 청년 1인가구 증가율(52%)은 경기도(72%)보다 더디지만, 팔달구(78%)는 경기도(72%)보다 높게 나타남
 - 노년 1인가구 증가율은 수원시(84%)와 경기도(87%)가 대동소이하지만, 권선구(107%)와 영통구(116%)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등 청년에 비해 노년 증가속도가 월등히 높은 현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음
- **수도권 시군구 단위에서는 연령대별(청년·노년) 격차가 성별 격차에 비해 지역별로 확연하게 차이를 보임**

 - 청년 1인가구는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도시지역에 밀집한 반면에 노년 1인가구는 수도권 북부와 동부에 많이 집중됨
 - 청년 비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59%), 서울특별시 동작구(52%), 수원시 영통구(51%) 순으로 높고, 노년 비율은 인천광역시 강화군(51%), 연천군(44%), 인천광역시 동구(43%), 양평군(41%), 가평군(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 1인가구의 변화는 지역별 편차가 타 연령대보다 컸으며,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한 지역도 있음
 -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하남시(448%), 인천광역시 중구(213%), 포천시(194%), 김포시(189%) 순으로 높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25%), 연천군(2%), 서울특별시 강남구(7%), 안산시 상록구(15%) 순으로 낮았음
 - 현재 노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상이하게, 노년 1인가구 증가속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근교에 집중됨
 - 노년 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하남시(198%), 화성시(143%), 시흥시(141%), 김포시(129%) 순으로 높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29%), 과천시(29%), 서울특별시 종로구(38%) 순으로 낮았음
 - 중장년은 지역적으로도 흩어진 정도 측면에서도 대체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
 - 연령대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가 청년 51%p, 노년 40%p인 반면에 중장년은 28%p임

[그림 12] 수도권 청년 1인가구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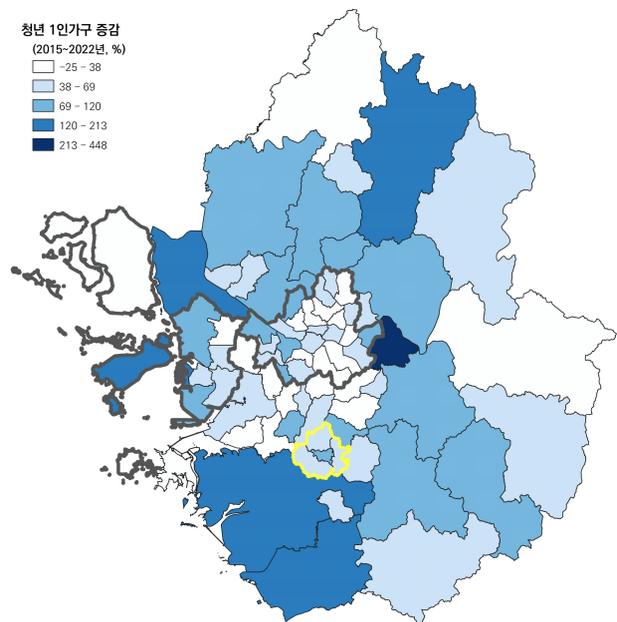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13] 수도권 청년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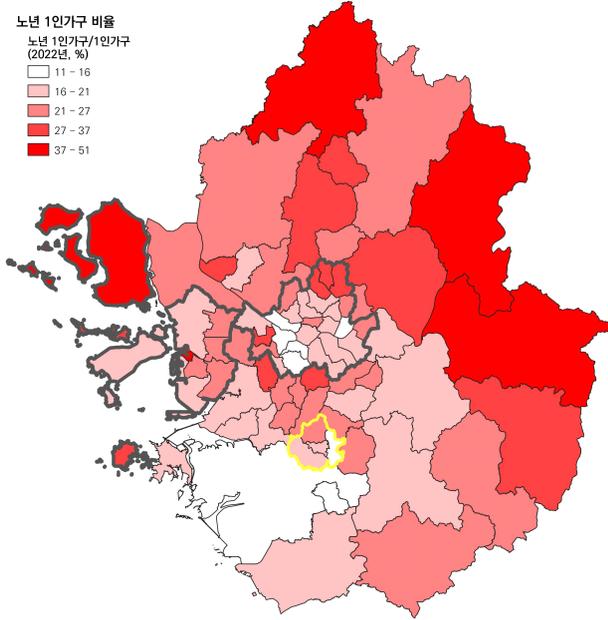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14] 수도권 노년 1인가구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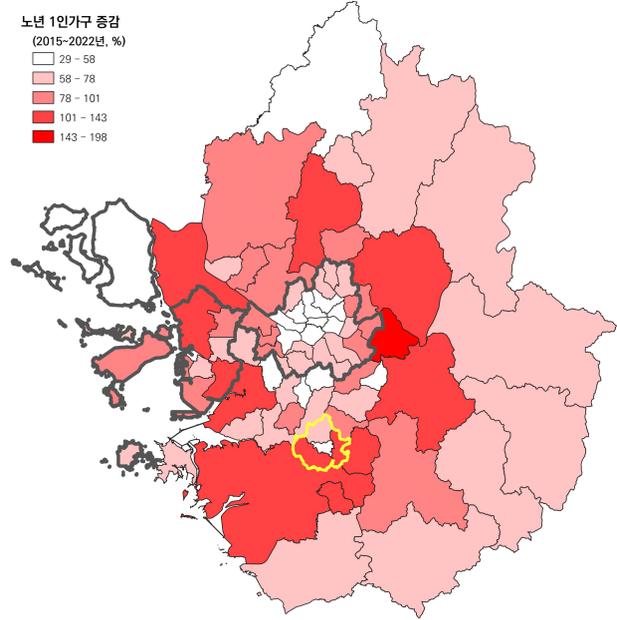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15] 수도권 노년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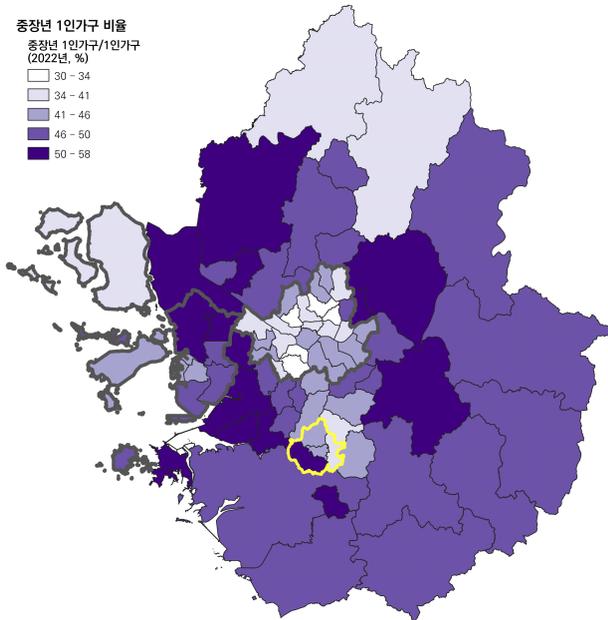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16] 수도권 중장년 1인가구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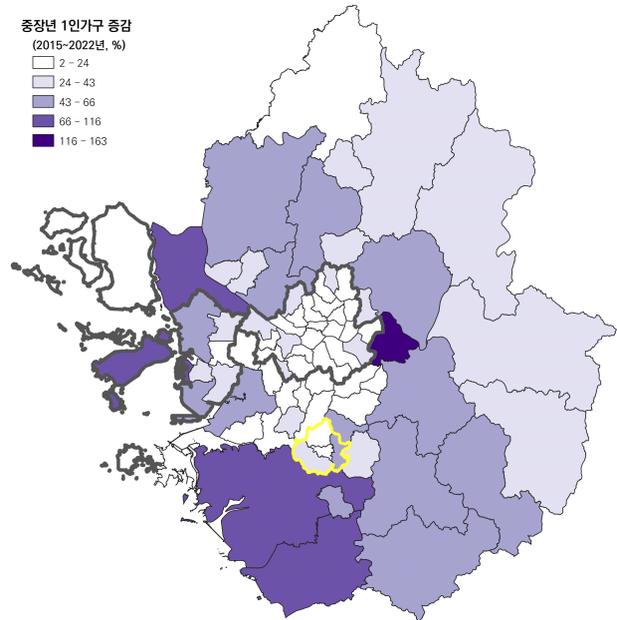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17] 수도권 중장년 1인가구 증감(2015~2022년)

(단위: %)



주: (2022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 2015년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수도권 거주 가구의 거처

□ 가구유형별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많은 지역에 해당 가구유형 또한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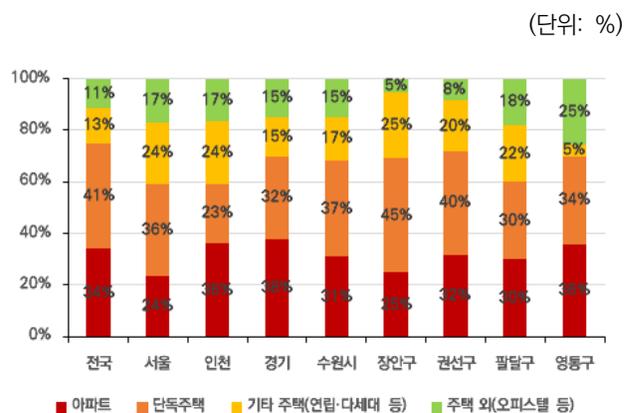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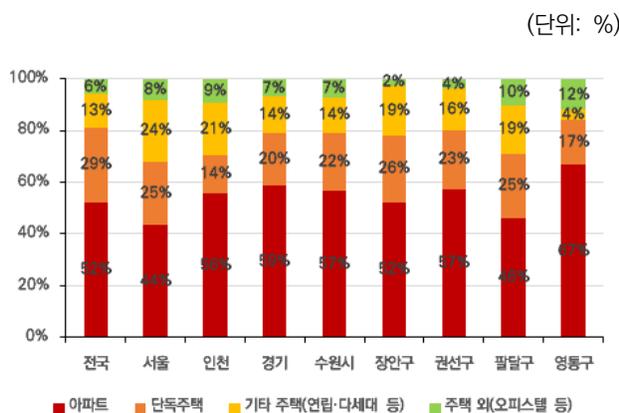
- 인구와 주택의 관계를 설명하는 Mankiw-Weil 모형은 연령대별 인구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전국·광역권·광역시도 단위에 적용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적 단위에서는 반대로 주택(또는 주거지)의 변화가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수원시 면적별 주택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측치와 상당히 유사한 예측치를 도출한 연구 결과가 있음(최현정 외, 2019)
- 즉, 지역 내 주택 특성에 따라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연령, 가구원수 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예컨대 연립·다세대주택과 같이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거주하게 되며, 소형주택에는 넓은 주택면적이 필요치 않은 1~2인 가구가 거주하게 됨을 의미함

□ 가구유형에 따라 거주하는 거처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음

- 일반가구(1인가구 포함)가 거주하는 거처²⁾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파트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2/3 이상을 차지함
- 1인가구만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전체 일반가구 대비 아파트 거주 비율이 확연히 낮게 나타남
 - 아파트 거주 비율은 대체로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작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월등히 높으며, 주택 외 거처(오피스텔 등) 거주 비율도 높음
 - 장안구의 기타 주택 거주 비율은 45%에 달하며, 영통구는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1/4을 차지함
- 1인가구는 주택유형으로는 비(非)아파트, 주택규모로는 중소형 주택이 많은 지역에 밀집한다고 유추할 수 있음

[그림 18] 거처의 종류별 일반가구 거주 비율(2022년)

[그림 19] 거처의 종류별 1인가구 거주 비율(2022년)



주: 거처의 종류별 거주하는 일반가구 수 / 일반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주: 거처의 종류별 거주하는 1인가구 수 / 1인가구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2)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뜻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함(통계청). 즉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까지 포함한 광의의 의미임.

수도권 주거시설

□ 비(非)아파트 및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1인가구 또한 많이 분포함

[그림 20] 거처의 종류별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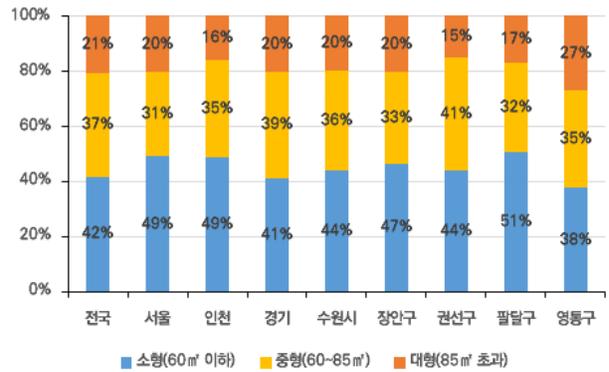
(단위: %)



주: 거처의 종류별 거처 수 / 거처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1] 주택 연면적별³⁾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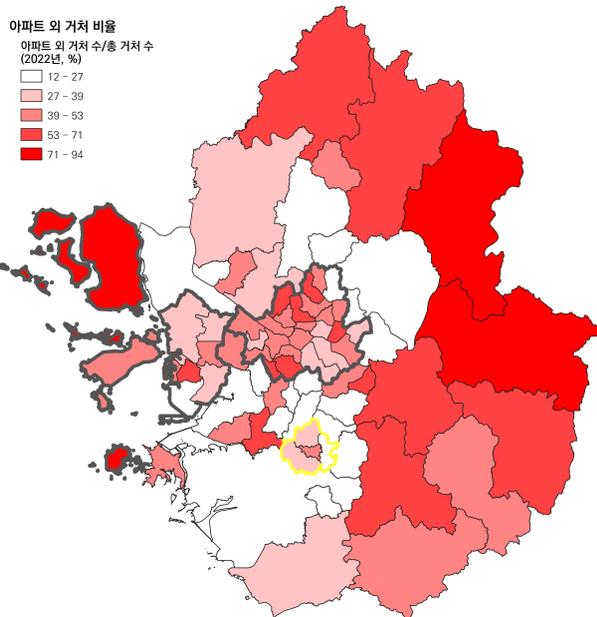
(단위: %)



주: 주택 연면적별 주택 수 / 주택 수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2] 수도권 아파트 외 거처 비율(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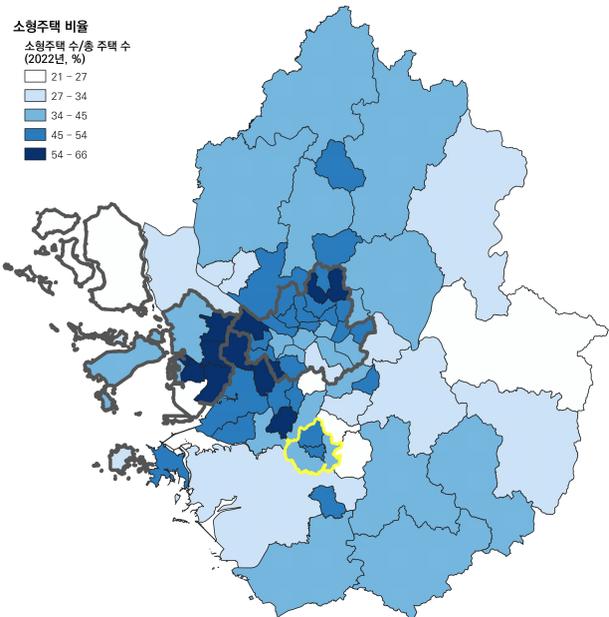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그림 23] 수도권 소형주택 비율(2022년)

(단위: %)



자료: 통계청(2023), 인구주택총조사. 시군구 단위.

3) 주택의 연면적별 유형은 소형(60㎡ 이하), 중형(60㎡ 초과, 85㎡ 이하), 대형(85㎡ 초과)으로 분류하였음.

- 전술했듯이 통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일반가구 평균과는 다르게 아파트가 아닌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이는 통상 3~4인, 적어도 2인 이상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면적 배분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아파트의 특성상 1인가구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결국 1인가구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선호하므로 해당 주택이 많은 지역에 1인가구 또한 밀집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타 지역 대비 아파트 비율(경기도 평균 66%)이 낮은 서울특별시(55%)와 수원시 팔달구(56%)의 1인가구 비율(경기도 평균 30%)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38%와 42%를 보이고 있음
 - 특이한 사례로 영통구의 경우, 광교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많아 아파트 비율이 81%로 월등히 높지만,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거쳐 비율도 12%이기 때문에 1인가구, 특히 정주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 1인가구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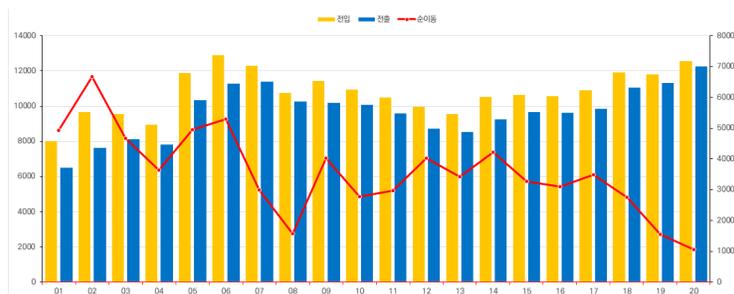
03 수원시 1인가구 특성

수원시 1인가구 현황

- 수원시 내외부로 전출입하는 1인가구는 아직까진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많지만, 그 규모(순이동량)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01~2020년의 20년 간 수원시 1인가구 유출입량을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많아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유입량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허경재·박관아, 2022)
 - 지역 내 1인가구 증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분가, 이혼, 사별 등), 전출입에 따른 1인가구 유출·유입 현상을 제외한 다른 원인들은 발생 현황 및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움
 - 특히 가구주가 청년이거나, 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는 타 유형 가구에 비해 먼 거리를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 또는 1인가구의 이주 사유 중 직업·교육(회사 전근, 대학 입학 등)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거인이 없기 때문임(동거인의 직장, 자녀 교육 등)
 - 반대로 중·장·노년 및 다인가구는 주택 사유로 인한 이주가 많고 동거인의 부양·교육 등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떠나기 어려운 이유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됨

[그림 24] 수원시 1인가구 유출입 추이(2001~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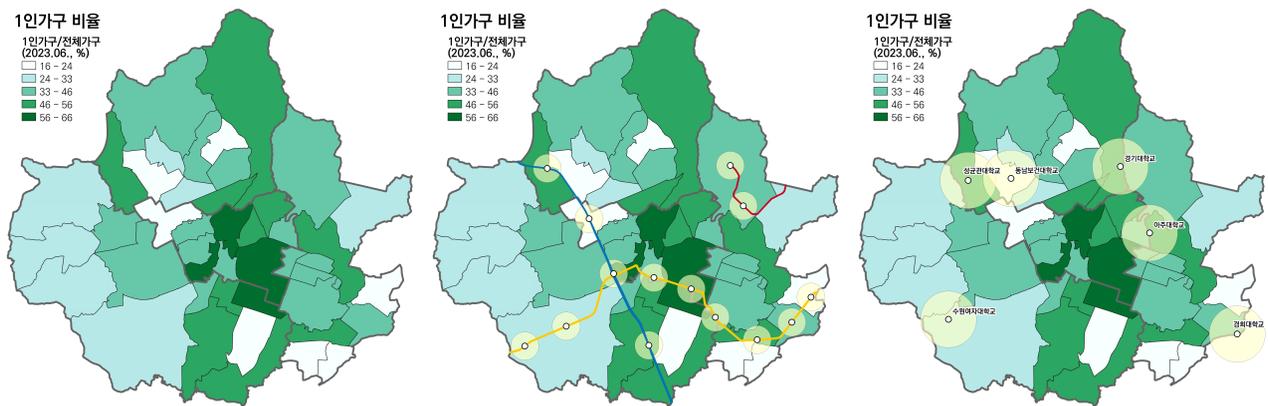
출처: 허경재·박관아. (2022).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 관내 1인가구⁴⁾는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의 1인가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수원시 내부 분석의 경우, 교통 편의성 및 학교 접근성이 1인가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기능해보기 위해 철도역과 대학교로부터의 거리⁵⁾를 추가하여 도면화하였음
- 수원시 내 1인가구는 행궁동, 매산동, 인계동, 우만1동, 지동 등 팔달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증가율이 높은 지역 또한 이들 지역 인접으로 형성되어 있음

[그림 25] 수원시 1인가구 비율(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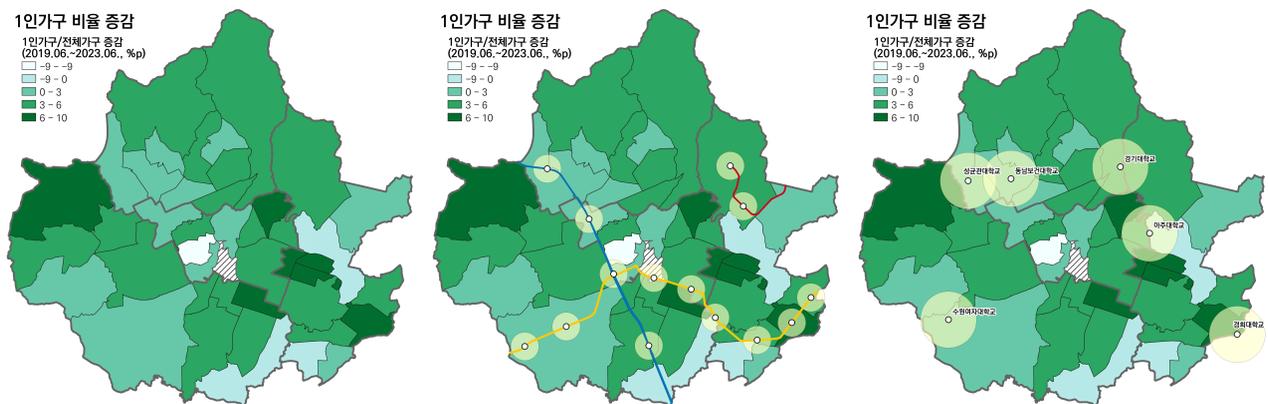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그림 26] 수원시 1인가구 비율 증감(2019.06.~2023.06.)

(단위: %p)



주1: 2023년 6월 1인가구 비율 - 2019년 6월 1인가구 비율
 주2: 팔달구 매교동(사선 표시)은 정비사업 이주로 인해 시계열 상 이상치(outlier)이므로 제외함.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례로, 팔달구 고등동의 1인가구 비율이 2019년 51%에서 2023년 42%로 8.5%p 감소했음
 - 정비사업 준공 후 아파트 입주로 인해 고등동의 전체 가구 수는 4,781가구 증가한 반면에 1인가구는 1,600가구

4) 수원시 내부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임.
 5) 철도역은 반지름 500m, 대학교는 정문 기준(성균관대학교는 후문) 반지름 1km를 표시함.

증가하는데 그침(전체 가구 증가량의 약 33%)으로써 지역 내 1인가구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임
 - 이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 중 상당수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인가구이기 때문이며, 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 유형에 따라 가구유형별 유입량이 변화한다는 점을 방증함

□ 1인가구 비율의 높은 증가가 꼭 더 많은 1인가구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권선구 입북동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19.6%, 2023년 29.2%로 4년 간 9.7%p 증가한 반면에 팔달구 인계동은 2019년 54.6%, 2023년 59.9%로 4년 간 5.3%p 증가했으므로 증가율 측면에서는 입북동이 인계동보다 4.4%p 더 높음
- 하지만 실제 1인가구 증가량은 인계동(2,540가구)이 입북동(913가구)보다 훨씬 많으며, 이는 행정구역별 가구 규모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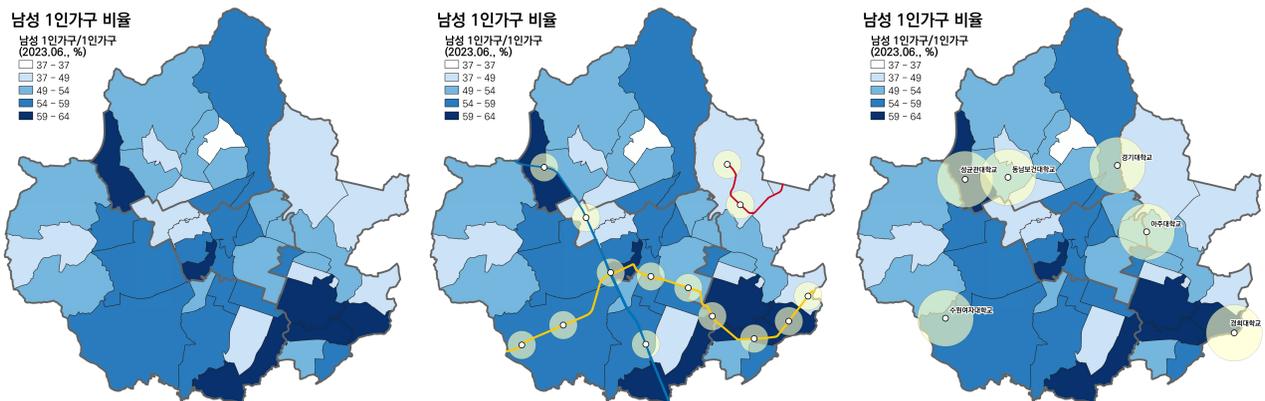
수원시 성별 1인가구

□ 수원시 남성 1인가구는 직장·대학 인근에 밀집, 여성 1인가구는 교통·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밀집

- 수도권 시군구별로는 성별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행정동 단위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 밀집된 정도가 상당 부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삼성전자와 경희대학교 인근의 권선구 곡선동(64%), 영통구 영통2·3동(63%, 60%), 매탄3동(63%) 및 성균관대학교 인근 장안구 율천동(63%)으로 나타남
- 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통구 광고1·2동(52%, 56%), 팔달구 화서1·2동(51%, 51%)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남
 - 장안구 조원2동(63%), 권선구 권선2동(55%)도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이는 연령대별 분포로 인한 결과로 사료됨

[그림 27] 수원시 남성 1인가구 비율(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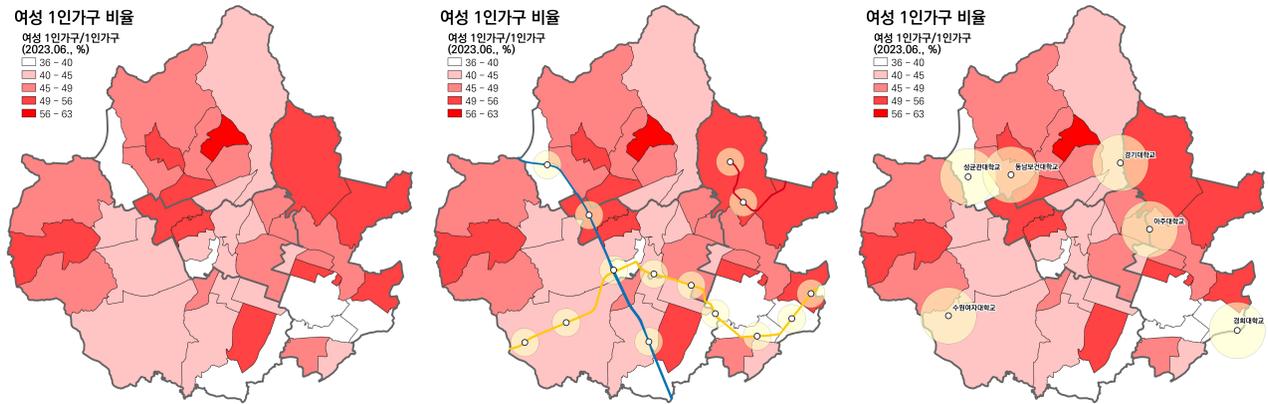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그림 28] 수원시 여성 1인가구 비율(2023.06.)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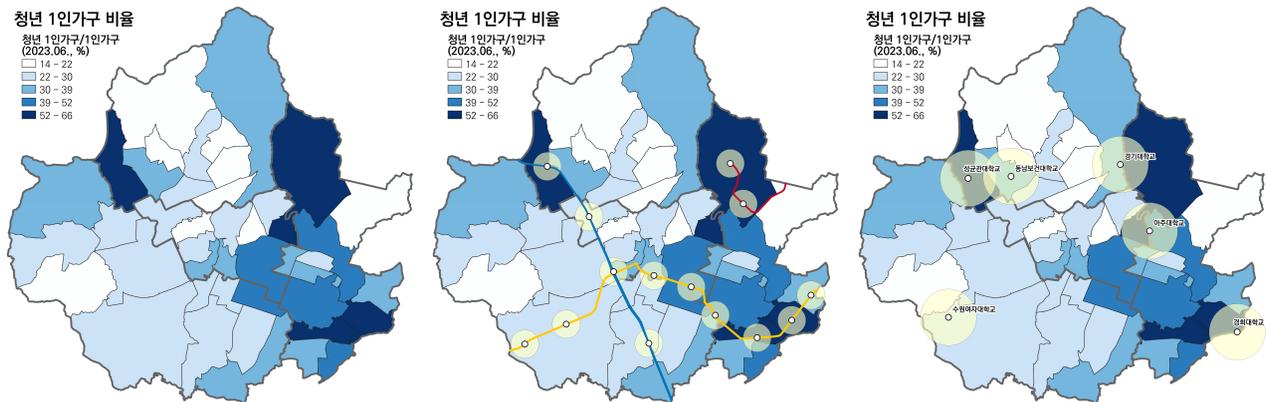
수원시 연령대별 1인가구

□ 수원시 청년 1인가구는 대학·역세권 인근에 밀집, 노년 1인가구는 전통적 주거지역에 밀집

-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성균관대학교 인근 장안구 울천동(66%), 삼성전자와 경기대학교 인근 영통구 영통2·3동(64%, 62%), 아주대학교와 경기대학교 인근 영통구 광고1동(62%)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들은 모두 대학교 인근일 뿐만 아니라 역세권이기도 함
- 노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장안구 조원2동(47%), 정자1동(32%), 팔달구 지동(34%), 화서1동(32%) 등으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전통적 주거지역임
- 중장년은 수도권 현황과 비슷하게, 지역적으로도 균등하게 분포하고 흩어진 정도도 청년·노년에 비해 작은 수준임

[그림 29] 수원시 청년 1인가구 비율(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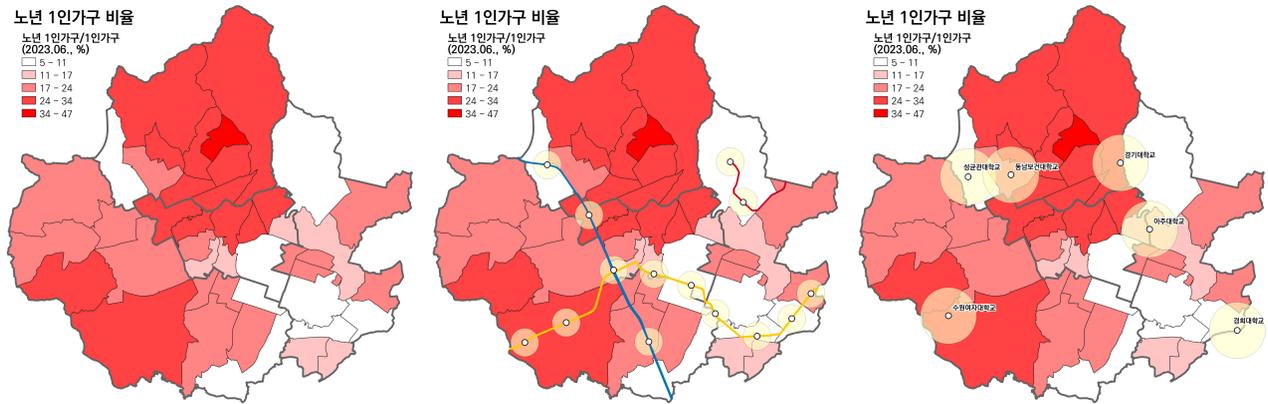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그림 30] 수원시 노년 1인가구 비율(20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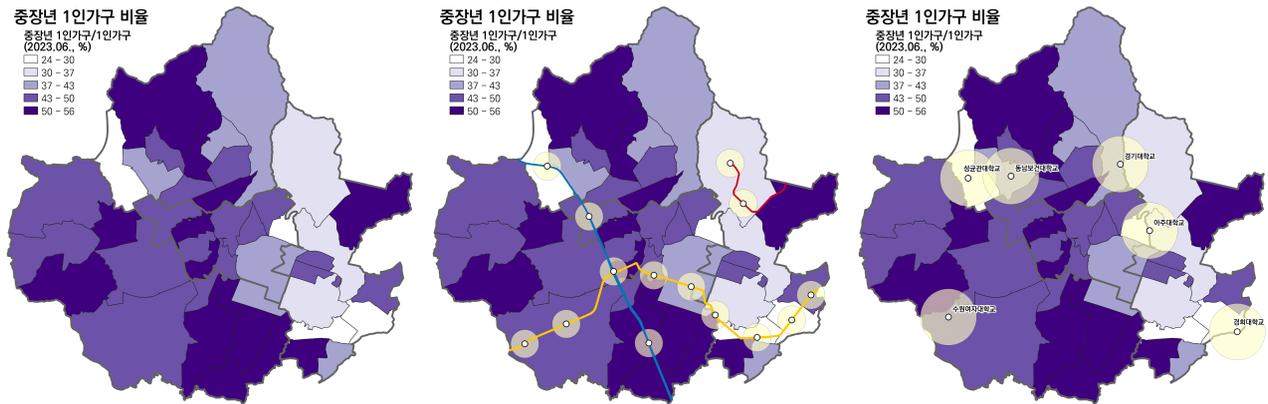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그림 31] 수원시 중장년 1인가구 비율(2023.06.)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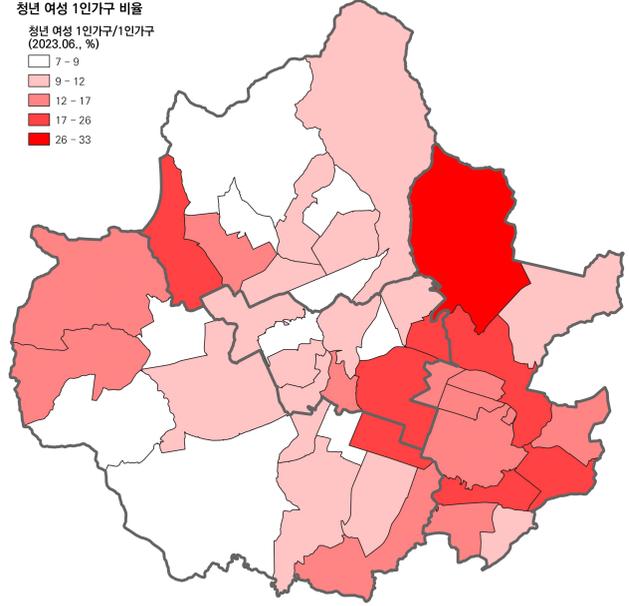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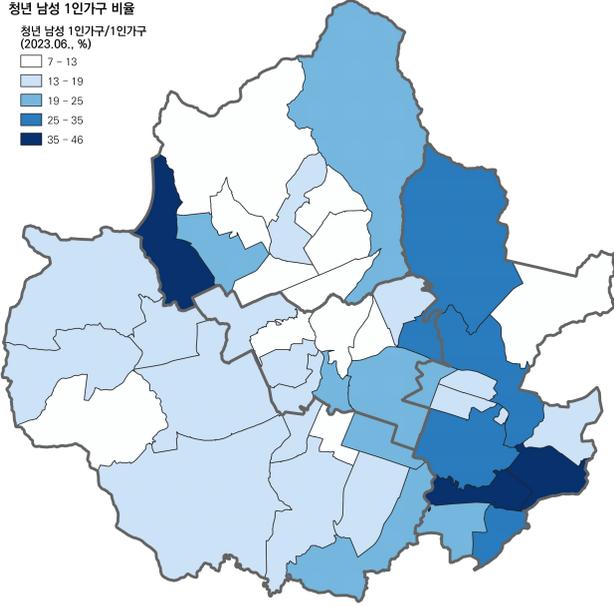
□ 성별 혹은 연령대별로만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가구유형이 밀집하는 조건(직장·학교 인접, 교통 편의성 등)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밀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연령대별×성별로 세분화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

[그림 32] 수원시 청년 남성 1인가구 비율(2023.06.)

[그림 33] 수원시 청년 여성 1인가구 비율(2023.06.)

(단위: %)

(단위: %)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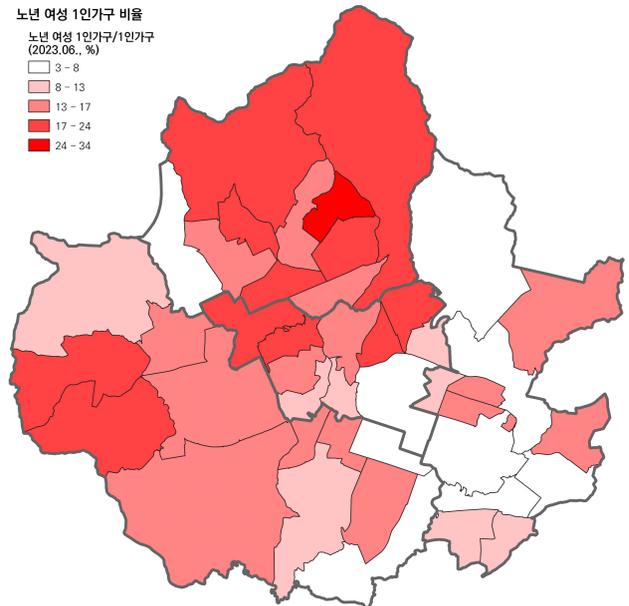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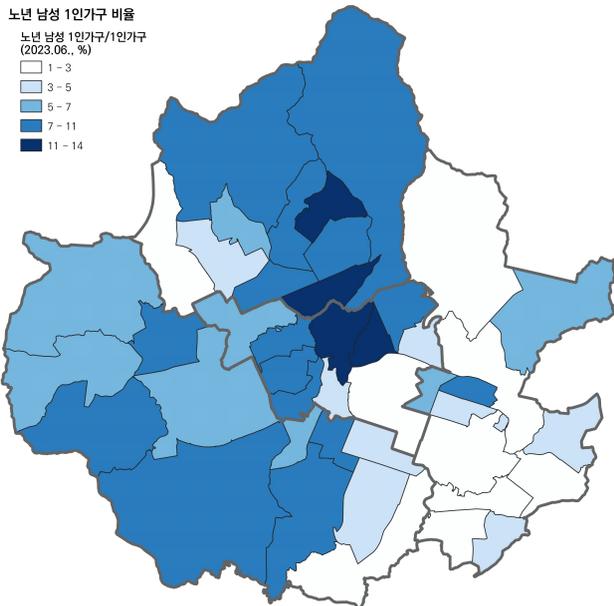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그림 34] 수원시 노년 남성 1인가구 비율(2023.06.)

[그림 35] 수원시 노년 여성 1인가구 비율(2023.06.)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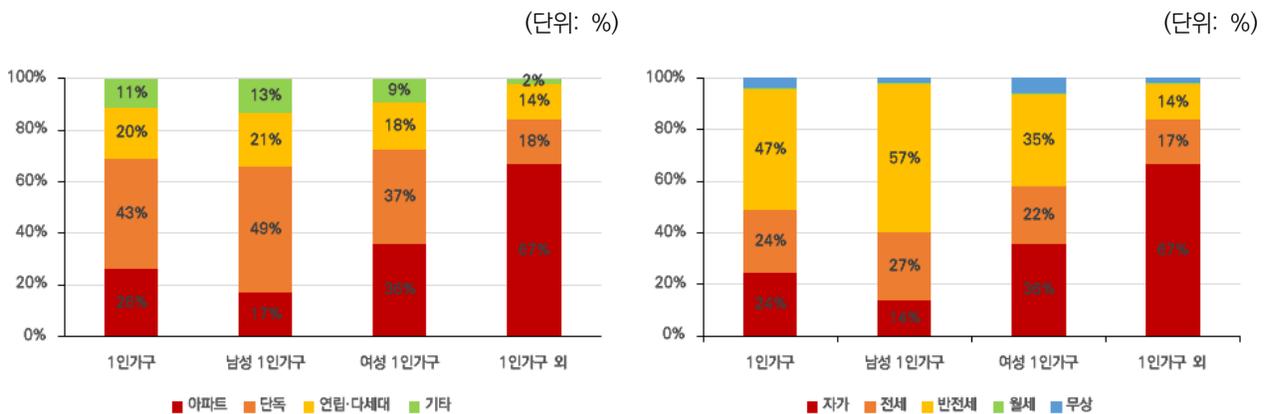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자료: 수원특례시 내부자료. 행정동 단위.

수원시 거주 가구의 주거 특성

- 수원시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 거주 가구의 가구유형별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 가구의 거처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원시 거주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약 2/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에 1인가구는 약 1/4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 1인가구 중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남성 1인가구의 17%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과반에 근접한 49%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에 거주하는 반면에, 여성 1인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36%)과 단독주택 거주 비율(37%)이 비슷한 수준임
 -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자녀의 분가 및 배우자(남편)의 사망 이후 이사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수원시 거주 가구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1인가구의 절반 가까이(47%)가 반전세(보증금 있는 전세)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
 - 2인 이상 다인가구의 약 2/3가 자가인 주택에 거주하는 반면에 1인가구는 약 1/4만이 자가 주택에, 약 1/4이 전세로 거주하고 47%는 반전세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음
 - 주택유형과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 1인가구의 14%만이 자가로 거주하고 과반 이상인 57%가 반전세로 거주하는 반면에, 여성 1인가구는 36%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반전세로 거주하는 거주 비율은 35%로 자가 비율보다 낮음
 - 앞서 주택유형에서 언급했던, 기존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노년 여성 1인가구로 인한 결과라는 설명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음
 - 다인가구 대비 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인가구 대비 상당히 낮은 자가거주율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림 36] 수원시 가구 형태별 거주하는 주택유형 비율(2021년) [그림 37] 수원시 가구 형태별 주거 점유형태 비율(2021년)



주: 거주하는 주택유형별 가구 수 / 가구 수
 자료: MDIS(2023), 2021년 수원시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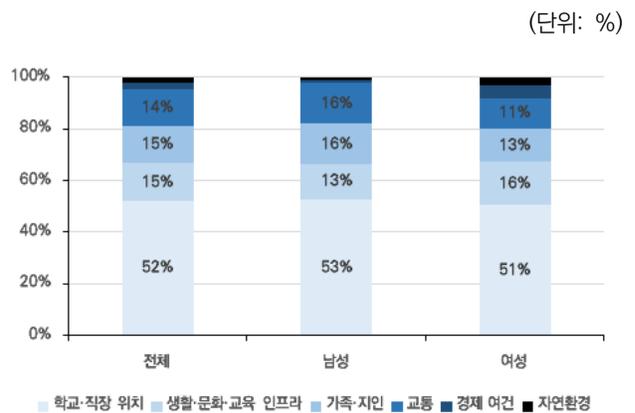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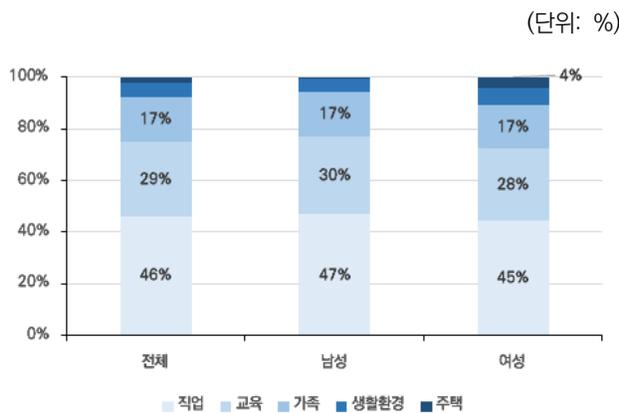
주: 점유형태별 가구 수 / 가구 수
 자료: MDIS(2023), 2021년 수원시사회조사.

청년 1인가구의 수원시 거주 사유

-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된 수원시 거주 사유와 미래에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싶은 사유를 검토함
- 수원시 청년 1인가구의 주된 수원시 거주 사유는 직업(46%)이 가장 컸으며, 그 뒤로 교육(29%), 가족(17%)가 뒤를 이음
 - 수원시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의 가장 큰 이주 사유가 직업인만큼(허경재·박관아, 2022), 청년 1인가구의 수원시 거주 사유도 직업 사유(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가 가장 컸음
 - 직업 사유 다음으로는 교육 사유가 뒤를 이었으며, 이는 관내 우수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교육(진학, 학업 등)을 위해 수원시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청년 1인가구 중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택 사유(주택구입, 계약만료, 재개발 등)로 수원시에 거주하게 된 남성 청년 1인가구는 1%인 반면에 여성 청년 1인가구는 4%로 조사됨
- 수원시 청년 1인가구 중 향후 3년 후에도 수원시에 계속 거주를 희망한 가구 대상으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주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직장 위치(52%), 생활·문화·교육인프라(15%), 가족·지인(15%), 교통(14%) 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에 거주하게 된 주된 사유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직장·사업장 위치가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답변했으며, 편리한 생활·문화·교육인프라, 가족·지인 거주, 교통수단 편리가 각각 15% 내외에도 비슷한 응답을 보임
 - 성별에 따른 차이 학교·직장 위치를 제외한 2~4순위에서 발생했는데, 남성은 가족·지인(16%), 교통(16%), 생활·문화·교육인프라(13%) 순인 반면에 여성은 생활·문화·교육인프라(16%), 가족·지인(13%), 교통(11%) 순으로 나타남
 -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거지 인근의 기초생활인프라가 잘 공급되어 있는, 즉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8] 수원시 청년 1인가구의 주된 수원 거주 사유

[그림 39] 수원시 청년 1인가구의 미래 수원 정주의사 사유



주: 주된 거주 사유별 가구 수 / 가구 수
 자료: 수원특례시(2023),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 미래 정주의사 사유별 가구 수 / 가구 수
 자료: 수원특례시(2023),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04 결론

수원시 1인가구 특성과 원인

- 수원시의 현재 1인가구 비율은 경기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별 분포가 상이하고 증가속도는 청년 1인가구에 비해 노년 1인가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가구유형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수원시 청년 1인가구 비율은 34.4%로 인천광역시·경기도보다 높지만, 행정구별로 살펴보면 팔달구(42.0%)와 장안구(31.9%)의 차이가 10%p 이상 벌어져 있으며, 청년 1인가구 비율은 영통구(50.9%)와 권선구(31.0%)와 같이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불균일한 분포를 보임
 -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청년 1인가구는 천천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년 1인가구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남성 1인가구보다 여성 1인가구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1인가구의 불균일한 분포와 상이한 증가속도는 지역별 주거현황, 교통 편의성,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1인가구의 특성상 주택유형으로는 비(非)아파트, 주택규모로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며, 해당 주거유형이 많은 지역에 1인가구 또한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로는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지 인근 정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령대별로는 청년의 직장·대학·역세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청년 남성 1인가구는 관내 대학 인근 선호(울천동, 영통2·3동), 청년 여성 1인가구는 정주환경이 좋은 지역 선호(광교1동), 노년 1인가구는 전통적 주거지에 집중됨(영화동, 행궁동, 지동, 조원2동)
- 1인가구 증가 현상에 대응하는 정책만을 수립할 경우 오히려 1인가구를 증가시키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 실패를 자초할 수도 있음

 - 예컨대, 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대비 저렴한 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은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1인가구 대응 정책으로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
 - 1인가구 중에는 주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국토연구원, 2022)
-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1인가구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해 근본적 원인까지는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가구분화이론 혹은 사회·경제적 요인, 전통이나 문화적 환경 등 1인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적 배경과 원인까지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주택 청약에 위한 분가·혼인신고 기피, 결혼 풍토 변화로 인한 만혼·이혼,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를 위한 조기 분가, 기업 지방 이전으로 인한 기러기 부모, 고령화로 인한 사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참고문헌

- 김리영. (2018). **수원시 1인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 방향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상일, 박정호. (2022). **수도권 내 서울 인구 전출입 패턴 및 요인 분석**. 서울연구원.
- 변미리, 최정원, 반민진, 이혁준, 김진아.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유정균, 황선아. (2021).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연구원.
- 이영안, 송화성. (2018). **수원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정혜은, 이수현. (2022).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 최현정, 최석환, 홍성조. (2019). **읍면동 단위 장래인구 추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 5(3), 67-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2532177>
- 허경재, 박관아. (2022).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 국토연구원. (2022.07.10.). **특집| 1인 가구 시대, 주거정책 방향**. [월간 국토] 2022년 7월 (통권489호). https://www.krihs.re.kr/publica/periodicalList.es?mid=a10103010000&pub_kind=1&pageIndex=1&report_num_temp=%ED%86%B5%EA%B6%8C489%ED%98%B8+%282022.07%29&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서울연구원. (2022.05.12.). **‘새집’ 찾아 서울 떠나고, ‘교육·직장’ 때문에 서울로 전입** [보도자료]. <https://www.si.re.kr/node/66062>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2023). **2021년 수원시사회조사**.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183&itmDiv=2&nPage=1&itemId=2&itemNm=undefined>
- 수원특례시. (2023).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통계청. (2023).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